



광주서 열린 세계인권도시포럼 7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열린 가운데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좌장으로 나선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뒤로 화상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장, 미첼 바첼렛 UN 인권최고대표, 오드리 이졸레 UNESCO 사무총장 등이 보여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軍, 군공항 이전 작업 본격화

"더이상 늦출 수 없어" ... 후보지 해남·무안·고흥 3곳 압축
시·도지사 회동 앞두고 설명자료 배부 ..."성급했다" 지적도

광주시와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활동을 재개했다. 다만 시기적으로 좀 성급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만간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만나 군 공항 이전과 행정통합 등 광주·전남 주요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7일 "국방부와 함께 제작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설명 자료를 전남 22개 시·군 지자체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무안, 해남, 영암, 신안 등 일부 시군에 자료를 보내려다가 해당 지역의 반대로 배부하지 못했다.
시는 3주 정도 모든 시·군에서 설명 자료를 검토하도록 한 뒤 관심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현장 설명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관심 지자체가 나타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군 공항 이전 적합지로 거론된 전남의 모든 자치단체에선 지역민과 함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자료 배포 시점에 대해서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남도측

에서 광주시장과 만난 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양 사·도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미리 꺼내 들어 전남도를 자극할 필요가 있는지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설명회의 경우 각 시·군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가 배포한 설명자료는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 배경, 지원 제도와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두 번째 장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 경과, 지역 파급 효과 등을 담았다.
국방부는 2016년 8월 광주시의 이전 건의 타당성을 평가해 적정하다고 통보했으며 전남 후보지 조사 용역, 군사 작전 적합성 검토를 거쳐 3곳을 도출했다. 자료에는 구체적 지역명이 표기되지 않았으나, 무안, 해남, 고흥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장은 신공항 건설과 지원 방안 등을 소개했다. 신공항은 소음 피해 최소

화에 중점을 둔 입지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소음피해가 적은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지역 의견을 수렴해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조정하며 시공 단계에서는 신공항 규모와 현재 군 공항보다 1.9배 확대하고, 소음 완충 지역 110만평을 확보한다.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최소 4500억원을 보장하고 기존 부지 가치, 이전 사업비 등에 따라 증액할 수 있다.

상온 유통 독감백신 전남에 9만3494도스

40명 접종 ... 이상 징후 없어
전남도, 전량 수거 중

유통 중 상온에 노출된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이 전남지역에서만 9만3000여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관온도 이탈로 백신 효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독감백신이 전남지역에 9만3494도스가 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백신 유통사인 신성약품을 통해 전량 수거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생활기반 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 증대 사업, 지역 개발 등 형태로 이뤄진다.
배부한 광주시 군 공항 이전추진본부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군 공항 이전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돼 국방부가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검토 지역으로 도출된 3곳은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요청이 있으면 설명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달 15일 공급된 이백신들은 전남지역에 1차 보급된 전량으로 이중 40도스가 실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접종 받은 40명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수거 대상 백신의 지역별 현황은 순천 1만7500도스·여수 1만6000도스·목포 1만5000도스·광양 9000도스·나주 5000도스로 시·군 단위 지역에 몰려 있다. 군 단위 지역에서도 1000~3000도스씩 공급됐다. 전남도는 이번 주 내로 백신 수거를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는 접종을 재개할 방침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5·18 암매장지 표기 軍 지도 있다 광주교도소 '8계단 좌표' 비밀은?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 밝혀
광주~화순 국도 차량 피격
주남마을 학살 이외 최소 3건
북한군 광주 침투 관련
어떠한 동향·기록도 없어

5·18민주화운동 당시 암매장지를 자세히 표시한 군사지도가 있으며, 항쟁 당시 광주~화순간 국도에서 계엄군이 시민 탑승 차량에 총격을 가했던 사건 이외에도 최소 3건의 차량 피격 사건이 추가로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특히, 대표적 인 5·18 왜곡 중 하나인 '북한군이 침투해 항쟁에 참여했다'는 망언과 관련, 국가정보원 자료에는 북한군 광주 침투나 항쟁 참여와 연관된 그 어떤 동향과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은 "지난 4개월여 동안 236명의 군인을 조사했다"며 "이들 중에는 암매장지를 지시했던 현장 지휘관과 이를 실행한 사병도 포함돼 있으며 26명은 암매장과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광주교도소 암매장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시체를 묻은 뒤 교도소 내 정확한 위치 식별이 가능한 이른바 '8계단 좌표'를 기록해 상부에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진술을 한 군인들 중에는 광주교도소 암매장에 참여한 현장 지휘관과 사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부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인 암매장이 이뤄졌고, 정확한 위치를 기록한 뒤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오에 따라 좌표가 담긴 지도를 찾아낸다면 암매장 의혹을 풀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는 게 진상규명위의 설명이다.
또 차량 피격에 대한 추가 증언도 나왔다. 송 위원장은 "10여명이 사망한 광주~화순간 국도 차량 피격 이외에 3건의 차량 피격 증언도 확보했고, 육군본부부터

당시 진압에 나선 3만명의 군인 명부도 남겨받아 조사 중이다"면서 "조사를 진행중인 3공수 관련자 중 4분의 1가량은 트라우마가 심해 조사가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유골이라도 찾아야 한다'며 의미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979년~1980년 신군부의 조직적인 집권 시나리오 흔적도 일부 발견했고,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지의 국가의 기밀문서 열람을 준비하고 있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이르면 내년 4월께 대국민보고회를 열 것"이라면서 "국정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북한군 개입에 대한 그 어떤 자료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에서는 위치의 정확성을 위해 6계단~8계단~10계단 좌표를 사용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6계단 좌표는 위도를 3단계로 구분하고 경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8계단은 위도와 경도를 각각 4단계씩 구분한다. 10계단은 5단계로 구분한다.
정밀성을 요구하는 포병부대나 박격포의 경우 주로 8계단 좌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당시 전교사 작전일지에는 가매장지를 6계단 좌표로 남긴 기록도 남아있다.
1980년 6월 2일 '가매장 예상지역 수색 결과'라는 보고에는 '주남(현재 주남마을)(CP132854)'라는 6계단 좌표장소와 함께 시체1구 발견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보고 내용의 발견개요에는 '시체1구를 발견했으나 많이 부패돼 더 이상 파보지 못하고 가매장'이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1:50000지도 상 8계단 좌표를 사용했다면 오차 범위는 10m이내로 정확성이 확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야지에서 암매장지를 기록했다면 10계단 좌표를 남겼겠지만, 교도소라는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면 8계단 좌표로도 정확한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훈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낙태죄 유지 ... 엇갈린 반응 > 6면
지독한 이혼수, 양현종 10승 도 불발 > 18면
신 팔도 명물 달달한 '여주 고구마' > 22면

내일 한글날 신문 쉽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2weeks
고함원 고함원 데일리 메이크업
필자 주름 완용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민 40-59세 성인 여성 (대상 연령 2019.09.16 ~ 10.17 적용) | 100% 수입품 | 100% 원산지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